경 제

광주·전남 대기업 대부분 설 연휴 닷새 쉰다

기아차·삼성전자 광주공장 18~22일 공장가동 중단 금호타이어는 나흘 연휴

백화점은 18~19일 폐점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사업장은 최장 닷새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촌공업단지 등에 모인대기업 협력업체 역시 닷새 간의 연휴에들어간다.

1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기아자동 차 광주공장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

10만원 수표 사용량

7년째 뚝뚝… 4분의 1

5만원권 발행 영향

한때는 직장인들의 비상금으로

애용됐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량이 7년째 급감, 4분의 1토 막이 됐다. 무엇보다 5만원권의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

제규모는 94만건(940억원)으로,

2013년의 112만9000건(1129억원)

보다 16.7%나 줄었다. 일평균 결

제건수는 10만원권 수표 사용이

정점이었던 2007년(406만2000건)

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

제건수는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 과 금융위기 등 영향을 받은 2008

년(374만2000건)에도 전년보다 7.

9% 줄어드는데 그쳤다. 그러나 5

만원권이 6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에는 307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7.9%나 줄면서 감소폭

이 커졌다. 이어 2010년(247만

7000건)에는 19.4% 줄고 2011년

(199만건)에는 19.7%, 2012년(146

만6000건)에는 26.3%, 2013년에

는 23.0% 각각 줄어드는 등 5만원

권 발행 이후 작년까지는 두자릿

이에 따라 한은은 10만원권 자

기앞수표의 이용 감소 이유로 신

용카드 등 지급결제수단이 다양

화된 가운데 5만원권이 대량 보급

수의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다.

보급 영향이 크다.

다.

일 동안 설 연휴를 갖는다. 기아차의 단체 협약은 설연휴 법정공휴일에 하루를 더 붙 여 쉬게 돼 있지만, 올해는 추가 휴일이 토 요일(21일)이어서 22일까지만 쉰다. 기아 차는 설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상여금(통 상임금의 50%)과 명절귀향비(현금 80만 원), 2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18일부터 22 일까지 생산라인을 멈추고 5일의 연휴를 갖는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이지만 연봉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지급은 없 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모 두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쉰다. 워 크아웃 기간 반납됐던 정기상여금(평균임 금의 100%)이 이번 명절부터 생산직 사원 들에게 지급된다.

대기업 협력업체가 다수인 광주의 첨 단·평동·소촌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대기 업 휴가 일정에 맞춰 대부분 닷새 동안 공 장 가동을 멈춘다. 일부 업체는 나흘을 쉬 기도 한다.

전남지역 조선업계는 닷새의 연휴에 들어가지만 수주 물량 납기를 맞춰야 해 일부 특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5일의 연휴에 들어가며 상여금(통상임금의 50%)과 귀향여비 5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정유·화학업계는 공장가동을 한시도 멈출 수가 없는 업종 특성상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 현장 직원들은 평시와 거의 다름없는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여수 국가산단에 몰려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 등은 연휴 때에도 일정 부분 공장 가동을 유지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설 연휴 특수를 기대 하는 유통업계는 이틀만 쉰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전날인 18일과 설 당일인 19일 2일간 폐점한다. 다만 설 연휴 전인 16~17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30분연장 영업하고, 20~22일까지는 종전 주말 영업 종료시간처럼 오후 8시30분까지연장 영업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벌써 설 명절 분위기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12일 광주지검 앞에 개설한 농축산물 특별판매 직거래장터에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벤트 행사로 떡메치기를 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상의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존치해야"

거래소측 연내 폐쇄 결정에 "현 정부 중기 정책과 배치"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개소 20년 만에 폐쇄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광주·대구사무소는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 결과 '운영비 대비 실효성이 낮은 만큼 폐 쇄하라' 지적을 받았고, 이에 한국거래소 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두 사무소의 폐 쇄를 결정했다. 지난 1995년 개소한 지 꼬 박 20년 만이다. 광주사무소는 대구사무

소와 더불어 오는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사무소가 폐쇄되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이 당장 서비스 면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 지역공 헌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상의는 한국거래소에 건낸 건의문에서 "지역 기업의 상장유치 등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광주사무소가 폐쇄된다면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기업 규모와 내부 역량

부족으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업무적 부담을 가중시켜 직접금융 이용을 위축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전력과의 에너지밸리 조성과 현대 차와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지역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선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신성장산업의 육성전략 안에서 관련 기업들의 직접금융 활용기반을 강화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1.63 (-4.07)

▲ 금리 (국고채 3년) 2.08% (+0.02)

▲ 코스닥 602.24 (+0.83)

▲ 환율 (USD) 1110.70원 (+13.00)

트렉스타, 아웃도어 황금상 수상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세계 최 대 스포츠 아웃도어 전시회(ISPO)에서 황금상(Gold Winner)과 올해의 아시 아제품대상(Asian Product of the year)을 동시에 수상한 것을 기념해 전 국 및 지역별 대규모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렉스타는 이를 기념해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www.treksta.co. kr)에서 신제품 '코브라 고어텍스 서라 운드' 신발 구매 전 고객에게 신발보조 가방세트를 증정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권 트렉스타 매장에서는 '핸즈프리' 혹은 '코브라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발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씨월드 고속훼리 제주도 왕복 승선권을 1매씩 제공한다. 트렉스타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쇼핑몰에서는 선착순50명 한정으로 진행된다

13일부터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제주

또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 트렉스타 매 장에서는 에어부산과 공동으로 백두산 의 황홀한 절경을 누릴 수 있는 '백두산 용문봉 트레킹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우산업개발 '이안' 광주 본촌동에 834가구 분양

대우산업개발의 이 안 아파트가 이달 중 일반 분양에 들어간 다

지난해 광주첨단 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1000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대우산업개발은 광주시 북구 본

촌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2층 13개동 규모로 834가구를 짓는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며 이미착공에 들어가 2017년 입주예정이다. 조합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386가구는 2월 중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분

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투시도〉 아파트 인근은 빛고을로가 인접해 있 어 광주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며 명 문학군인 일곡지구와 같은 학군으로 쾌 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분양 문의(062-528-980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세얼굴

"도로·하천 등 안전한 호남만들기 총력"

권 석 창 익산국토관리청장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안전한 호 남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일 제51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장으로 취임하는 권석창(49) 신임 청 장은 "익산국토청은 호남지역 도로와 하천의 건설과 관리는 물론 안전을 책 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호남 지역 전체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

로 모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 고와 서울대 신 문학과를 졸업 했다. 제34회 행 정고시에 합격 한 뒤 해양수산

부 항만물류과장과 국제해사팀장, 국 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간선철도과장, 대통령실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공공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